



환우들의 웰빙

장 황 호

(동산의료원원목실장, 본협회 대구 경북지부장)

현대를 웰빙 시대라고 한다. 웰빙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쓰느냐에 관한 소유의 차원이 아니다. 웰빙은 말 그대로 존재(being)의 안녕이자 완성이다. 자기 스스로 만족스러운 삶이다. 몸과 마음이 행복한 삶이다. 이것을 위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영원한 삶이란 무엇인가? 참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하며, 그 대답을 신학적으로 찾아가는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의 은총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웰빙은 건강과 깊은 관계가 있다.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은 일단 웰빙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환자들은 그들이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가졌든지 간에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스트레스를 함께 받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환자들도 웰빙의 삶을 구가할 수가 있을까?

첫째로, 자아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16세기 스위스 신학자 칼빈(J. Calvin)은 인간이 가진 지식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하였다. 자기 자신을 바로 안다는 것은 인간이 현실을 바로알고 삶의 방향을 찾아가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란 것이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이런 지식은 홀로 서기로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비추어줄 거울이 필요하다. 그것은 내 주변의 사람일 수 있다. 부모이거나, 친구, 지도자 등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존재들은 불확실하며 상대적이다. 따라서 이 거울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은 제대로 파악된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에게 절대적

이고 완전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비추어줄 대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만 자신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지지 그룹이 필요하다.

환자가 스스로를 볼 수 있는 능력의 회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지그룹이 필요하다. 먼저는 가족의 지지가 필요하다. 환자는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지가 건강회복의 중요한 요인이다. 환자에게 있어서 가족은 광범위하고 무한정한 에너지 장이다. 가족의 지지는 환자로 하여금 위기에 대처하고 변화에 적응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교회 공동체의 지지가 필요하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 불안, 염려, 두려움 등이 엄습할 때 환자는 육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으로 약해진다. 이때 환자는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기를 바라고 의지하고 싶어진다. 이때 교회 공동체가 환자를 찾아가 관심과 격려를 줄때, 함께 순례의 길을 가는 동반자로서 환자의 방향과 좌절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치유를 향한 목표지점을 눈을 들어 바라보도록 돕고, 그 목표를 향한 투병의 길을 계속하도록 격려하며 지지해줄 때, 환자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놀라운 힘을 얻을 수 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한 성도의 교제는 또 다른 힘의 근원이 된다.

셋째, 섬기는 삶을 통해서 완성된다.

이 땅위에서 가장 온전한 웰빙의 삶을 살았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다. 그분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지도 웰빙의 삶으로 인도하셨다. 웰빙의 삶은 섬김의 삶이다. 인간은 그가 어떤 방법이든지 섬김을 실행할 때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웰빙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진정한 웰빙은 우리가 가진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그것이 많은 적든 혼자 갖지 아니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 때 완성되는 것이다.